

‘생명·안전’ 최우선... AED 조달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강소기업 ‘나눔테크’

‘자동심장충격기’ 의료기기 생산
과기원 기술협약...6만여대 공급
실외 응급 대처 옥외보관함 보급

“자동심장충격기 하나로 심장 관련 응급상황 시 생존확률이 95%까지 올라갑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서 자동심장충격기(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제조·판매하는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의 최우선 기업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나눔테크는 지난 2005년 설립,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며 10년간 조달청 AED 조달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또 지난해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 AED는 물론 고주파 자르기, 경추 스트레칭 마사지기 등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AI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한 심장제세동기 개발·특허를 앞두고 있다. 주력 제품인 나눔테크의 AED는 심장지 환자의 심전도(ECG)파형을 분석하고 심정지 여부를 판단해 전기충격을



9일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나눔테크 공장에서 최무진 대표가 자사 AED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가해 심장을 정상리듬으로 회복하게 하는 응급의료기기로, 사용법이 간편해 위급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나눔테크가 AED 시장에 진출한 것은 설립 후 주력으로 삼던 성장판 검사기인 ‘엑스선골밀도측정기’ 유행이 시들해지며 미래 먹거리를 찾던 중 광주과학기술

원(GIST)이 AED원천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다.

최 대표는 국민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AED 보관화 가능성, 관련 시장의 성장성 및 투자 확대 등을 예측하고 제품 개발·생산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8년 광주과학기술원과 기술개발 제휴 협약을 맺

며 3년여의 시간을 투자한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다. AED관련 30여건이 넘는 특허와 전국 각지에 약 100곳의 영업점을 구축했으며 자동심장제세동기 6만여대를 공급해 시장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상용화 이후 매출은 약 500% 이상 치솟았으며, 10여명이었던 직원 수도 62명까지 늘어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AED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돼 AED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눔테크는 최근 실외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AED 옥외 보관함을 선보여 주요 관공서나 집합건물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약 350개의 옥외 AED보관함이 공급됐으며 지리산 천왕봉 정상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됐다. 나눔테크의 옥외 보관함은 기존 실내 제품의 한계를 보완해 온도 변화감지센서, 항온 기능 탑재, 태양광을 활용해 실외에서도 보관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눔테크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KGMP, KFDA, CE, ISO13485,

SFDA, Anvisa 등 국내외 인증서를 획득했고, 유럽인증 MDR 갱신을 진행 중이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등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 나눔테크는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지역 복지 사업비로 각 2000만원을 기부했다. 국내 아동복지 기금 1000만원 기부, 심장재단 연계 청년 심장수술 지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눔명문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최무진 대표는 “연간 4만~5만명 정도가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심장마비는 20대부터 8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다. AED는 ‘의사 한 명’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심장 관련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며 “지난 10년간 나눔테크의 AED로 생명을 구한 사례가 국내에서만 89건에 달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회사 슬로건을 기반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롯데백, ‘핸드캐리’ 선물세트 선보여 롯데백화점이 올해 추석 선물세트로 구매 후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축산·청

과 ‘핸드 캐리(Hand carry)’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막바지 추석 수요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핸드 캐리 상품은 소규모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 좋은 ‘한우 소확행 행복 GIFT(18만원)’, 종류별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에센셜 사과·배·샤인(5입, 7~8만원)’, 국내1호 과일소물리에가 추천하는 ‘샤인머스켓(2입, 6만5000원~7만5000원)’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주은행, ‘외화에금 환테크 이벤트’ 마련

광주은행은 최근 환율이 빠르게 변동하면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환테크’에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외화에금 환테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미국달러(USD)와 일본엔화(JPY) 두 가지 통화로, 이벤트 기간 동안 ‘환테크서비스&외화에금’ 신규 가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2달러를 지급한다.

이벤트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광주와(Wa)뱅크(APP)를 통한 환테크서비스(FX트레이딩 서비스, 목표환율 알림서비스, 외환매매 예약서비스) 가입이 필수 조건이다. 외화정기예금은 미화환산 1000달러 이상이며 외화정기적금은 2회

이상 정상납입한 계좌로 미화환산 100달러 이상 잔액 유지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신청된다.

‘FX트레이딩’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실시간 적용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 시에 1회 환율 우대 승인만으로 유효기간 내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2개 통화(USD, JPY) 환율 80%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목표환율 알림서비스’는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해당 환율 도달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며 ‘외환매매예약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희망 환율에 도달 시 자동으로 외화를 사고 팔 수 있어 쉽게 외환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보해양조, 추석 프리미엄 선물세트 12종 판매

프리미엄 매취순·매실청 등 구성
광주신세계에서 15일까지 시음행사
스마트오더 앱 등 판매채널 다양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추석을 맞아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준비하며 명절 준비를 돕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매취순 세트 5종 △매실 식품 2종 △매실청 & 절임 세트 5종으로 구성됐으며, 가격대별로 총 12종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선물을 제안한다.

매취순은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으로, 해남에 위치한 보해 매실농원에서 직접 수확한 최상급 매실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최소 5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쳐 매실 특유의 깊고 풍부한 향과 맛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매실주로 완성된다. 매취순은 뛰어난 품질과 다양한 구성으로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해양조의 추석 선물세트는 전국 편의점은 물론 GS리테일의 ‘와인25플러스’와 주류 스마트오더 앱 ‘데일리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해양조가 추석을 맞아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매취순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주문한 후, 가까운 편의점이나 주류 전문점에서 픽업할 수 있다. 다양한 구매 채널은 명절 선물 준비로 바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15년 숙성 매취순’ 시음 행사가 열린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설부터 보해 매취순 선물세트 특별코너를 마련해 지역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음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진행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선물세트와 편리한 구매 채널을 마련했다”며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되는 시음 행사와 선물세트 판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TP·기업,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모색

“AI 지능형공장 지원 확대” 요청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스마트공장 도입해 운영 중인 60여 개 사의 대표와 관계자를 초청해 공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

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인간중심 첨단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중기부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광주지역에 300여 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AS지원사업,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2025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 일정 및

변경점 안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 모색 등으로 진행됐다.

애로사항 청취에서 기업들은 지역 토종 공급기업 부족으로 서울·경기 등 타 지역 공급기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및 사업비 역외 유출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 인력난 등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지능형공장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소영 기자